

송준영 시인과

# 禪詩 깊이 읽기



## 18. 허공을 붙잡은 천황

되기는 되었으나 점검해 보지만  
得即得 點檢將來  
그 노장 생전에 알량알량 속이고  
這漢生前漸瀟瀟  
죽은 뒤에 갈팡질팡 한다  
死後奔奔瀟瀟  
만약 코끝이 하늘 찌르기를 원하면  
若要鼻孔 搽天  
집뚫배기 대젓가락과  
瓦碗竹筴  
남은 밥 신 국, 한 쪽에 밀치고  
殘羹餵飯  
뜨거운 화로가, 호떡을  
熱爐餅餅  
원하거든 곧 청해야 한다  
要請使請  
알겠는가? 還會麼  
사람은 포기도 뿌리도 없지만  
人無根株  
밥으로써 생명을 삼는다.  
以食爲命

-보녕수

위의 선시들은 천황 도오(天皇道悟, 748~807)가 임종시에 우리에게 보인 활구법문에 대한 후세인의 엮이다. 죽음에 임한 사람이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자기 삶을 마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선다.

### 저승·이승의 벽 허물고 자유자재로 인생 마감 "깨달고자 한다면 평상심 벗어나지 않아야"

우리는 간혹 선사들의 이러한 기록을 보면서 그 웅장한 생의 운행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천황 역시 그렇다.

한 평생 궤환을 외치던 천황조실이 병이 중하게 되어 임종을 맞게 되었다.

"괴롭구나, 괴로워. 원주가 술을 가져와 좀 먹어다오. 고기를 가져와 나에게 먹여라. 염라대왕이 잡으러 온다. 어이할꼬." (院主 把酒來與我喫 將肉來與我喫 關老

子來取我也) 하였다. 원주가 곁에 와서 물었다. "큰스님께서서는 평소엔 궤환 궤환하시더니 지금의 왜 괴롭다를 연발 하십니까?" "원주가, 말해봐라. 그 때가 옳은가, 지금이 옳은가?" (且道 當時是 如今是) 원주가 대답을 못하자, 퇴침을 밀어내고는 숨을 거두었다. <선문염송> 351칙 <快活>

천황, 그는 스승이었다. 그에게는 저승과 이승의 벽이 허물어졌고, 그의 가르침은 우주운용의 하나일 뿐, 철저히 미친 사람이다. 저승의 강을 무엇이 이렇게 당당히 건너게 하는가?

이제 보녕수(保寧秀)의 엮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들 깨달은 이" 라고 모시는 조실스님이니, 그의 일생을 조명하여 보면, 생전에 그저 말뚝말뚝 적당히 지내고 죽음을 이르러는 허겁지겁 천방지축으로 헤매다가 3행까지 내용이고, 4행에서 8행까지 내용은 '깨달음의 바른 소식을 꼭 보고자 원하면, 다른 것이 아니다. 일상사와 평상

심을 벗어나지 않으니, 산사의 일상사와 살림살이를 알고자 하는가? 요긴한 것은 '질뚫배기 대젓가락과/남은 밥 신 국' 그리고 '뜨거운 화로와 호떡/필요로 하면 곧 청하라' 이것을 빼면 무엇 하나 더 필요치 않다.'

책어 : '사람은 근본적으로 알 수 없지만, 단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단 것은 꼭지까지 달고  
甘菊徹底甘  
쓴 것은 뿌리까지 쓰다  
苦菩連根苦  
퇴침을 밀어낼 때  
拈起枕頭時  
신라에서는 삼경을 친다  
新羅夜打鼓

-원조

알 <염송> 351칙 '궤환(快活)'에 대해 후대 선객의 계승 하나를 더 읽어보자.

1행과 2행은 "단 것은 꼭지까지 달고/쓴 것은 뿌리까지 쓰다"는 자성본원에 영회한 무사한인은 '철저히 한 통속이어서 안과 밖이 없어 내외명월(內外明徹)하고, 삶과 죽음이 같으며 늘 자발광하여 상적상조(常寂常照)하다' 라고 한 다른 표현이다.

4행과 5행 "퇴침을 밀어낼 때/신라에서는 삼경을 친다"의 풀이는 '지금 천황이 열반당의 정문을 밀치고 있는데, 먼 먼 신라에서 응답의 종을 친다'로 해두자.



##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 호박꽃튀김

꽃을 음식에 활용해온 역사는 우리나라도 서양 못지않습니다. 진달래와 아카시아꽃 등으로 만든 화전과 떡, 튀김 등이 꽃을 이용한 대표적인 음식이지요. 최근 서양채소와 허브가 재배되면서 꽃요리는 새로운 음식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양채소 중 먹을 수 있는 꽃을 '꽃채소'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이 꽃양배추, 브로콜리 등입니다.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꽃은 허브를 포함해 100여 종 정도가 있는데, 손에 꼽힐 정도로 이 가운데 영양소 파괴 없이 튀겨 먹어야 하는 꽃이 호박꽃입니다. 호박꽃에는 쿠쿠비타신 성분 외에 아미노산과 흡수가 잘 되는 철분, 당분, 카로틴, 비타민C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박경운 고려대 생명공학부 교수는 "독일의 생약회사가 요도의 전립선 수축이 잘 안 돼 배뇨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노제를 개발했는데, 생약의 50%가 말린 호박꽃 가루"라며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산모에게 늙은 호박을 먹이으로써 부기를 빼는 등의 효과를 보았는데 호박의 효능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박꽃은 자연 그대로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주키나 호박꽃을 사용하는데 꽃에 들어있는 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물에 익히지 말고 기름에 살짝 튀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박 교수는 "꽃이 활짝 피기 전에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은 달착지근한데 하루 2~3개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호박꽃 외에도 도라지, 솜바귀처럼 나물이나 잎 채로 씹을 수 있는 식물의 꽃은 거의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쪽꽃이나 은방울꽃, 애기풍뎡충 같은 것은 독성이 강하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조식해야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호박꽃튀김입니다. 호박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즐겨 먹습니다. 이탈리아 스파게티 중에는 호박꽃을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 예전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의 사찰요리처럼 호박꽃을 튀겨 스파게티와 같이 먹는 음식도 직접 맛보았는데, 특별한 맛이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 호박꽃튀김

재료: 호박꽃, 밀가루, 전분가루, 소금, 간장, 식초

만드는 법

- ① 튀김할 때 쓰는 호박의 알맹이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므로 수꽃을 준비한다. 아침 일찍 호박밭에 나가면 꽃이 활짝 피어 있다. 핀 호박꽃을 따서 물에 씻기 말고 둔다.
- ② 밀가루와 전분을 섞어 튀김옷을 만들고 호박꽃을 담겨 입힌다.
- ③ 120℃ 정도의 기름에 튀김옷을 입힌 호박꽃을 튀긴다.
- ④ 초간장과 함께 그릇에 낸다.

##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나는 오래전에도 여기 있었다  
임동혁 | 실천문학사, 2005 | 7천원



## 불교적 상상력으로 길어 올린 '희망'

임동혁은 1959년 광주에서 태어나 1987년 시집 <매장시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본 시집은 그의 6번째 시집이다. 그의 시집을 읽어가다 보면 그가 "노안천주교에서 견진성사를 받던 중학교 일학년"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 청소년기부터 천주교에 인연을 맺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 편의 시에서 불교적 제재를 취하거나 불교적 상상력을 가동시킨다.

목 없는 석불도 그 나름의 석불이어서  
그 반대로 역시 그 나름의 한세상일 따름이어서  
어떤 확신에 찬 신념의 최망치가  
광기의 돌날이, 도대체 회의할 줄 모르는  
또 다른 광신의 비밀결사  
발두를 집단적으로 도둑냈을지라도,

다 좋다. 흥도 순물 것 없다  
경주 남산에 꾸러기로 목없이 서 있는  
석불도 석불은 석불이다 (하락)

- "온몸을 들어올려" 부분  
화자에게는 목 없는 석불도 석불이고 목 있는 석불도 석불이다. 그러니 가 시적인 것은 본질이 아니며, 더 나아가 불상을 파괴하는 행위도 진심이라면 그것이 불심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하거나 파괴된 것조차 부처이며 석불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이다.

그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며"에서 "끝끝내 무너지지 않는 사랑의 구름 탑이 솟구쳐 오른다"며 "공허의 사막 속에서도" 폐허 이전의 너머를 꿈꾼다. 그는 '탑'에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소회를 시로 표현하기도 한다.

시에서 화자는 그 석탑을 "마무가네 기울거나 무너져간 채 당당한 서탑이여/그러니 그나마 온전하게 꿈의 기반

을 유지하길"하며 발원한다. 그러면서 "망각의 폐사지에도 고루 저녁노을이 깃들길!" 기원한다.

시 '공광로'에서는 백양사의 체험을 시화하고 있다. 화자는 백양사 진입로에 버려진 찻가마는 굴참나무 고목을 순환하는 식도로 표현하고 있다.

그 고목은 온갖 갑종류의 알이 숨어 있고 애벌레에게 파 먹고 있고, 불개미를 불러 모은다. 이런 것들에게 고목이 속살을 내맡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화자는 한 번 더 "어처구니없는" 비약적 상상을 한다. 연못의 버들 처는 한때 장구발레였으며, 장구발레는 진드기였다는 것이다.

화자는 "모든 것은 끝없는 나뉘짐과 사라짐의 축제/빛나지도, 굵기지도, 나 이지지도 않는 순간들의 유희"라고 한 뒤 백양사 "조실 서운 큰스님의 설법에 도 귀 기울이지 않고" 굴참나무를 "파

먹은 애벌레를 먹고/굴뚝새가 또 다른 굴참나무에 둥지를 틀어 알을 낳으니/ 굴참나무가 자신도 모르게 굴뚝새의 예쁜 몸을 탄생시킨 셈"이라고 운회와 원리를 피력한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굴참나무는 어린 굴뚝새의 어머니"인 것이다.

그는 전남 강진군 무위사 벽화 가운데 하나인 수월관음도를 다음과 같이 행상화 하고 있다. 이 벽화의 관음상에는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

오, 미완성하기에 아름답거나 더욱 그리울 날  
동이며  
길동무 하나 없이 청정한 내장 속 같은 반질  
걸어가는 장님처럼 제 지팡이 소리에 귀 기울  
이자  
차라리 눈 감은 채 독종 유물거리려는 밤의 사막  
을 지나가자

- '수월관음도' 부분

## 불자 정보

648호 |  
▷접수처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양산
  - 3층 건물에 3층, 재래식 큰 시장 안
  - 50평, 1,000만원에 30만원 시설 A급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 010-9809-5006

###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역 부근
  - 평수: 약 45평
  - 4층 건물중 3,4층(육상사용)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단, 주불 약사불 100불, 영가단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스님이 불사관계상 급 양도할 역학보시는 분 환영
- 011-225-8344

### 사찰안내

- 위치: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 30분거리
  - 가액: 3억(용자1억3천)
- 010-4583-2035

### 별장식토굴안내

- 위치: 춘천시 강촌교근
  - 건물: 한옥식 휴식공간
  - 평수: 130평(중중방·도지는 묘지법초로 대체)
  - 내용: 건축물 등기 완비 (방3,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정원)
  - 가액: 6천만원(절증가능)
  - ※망중환을 즐길수 있는 아련야
- 010-6312-8637

### 포교당안내

- 위치: 전남 광주시 월산동
  - 대지 52평
  - 1, 2층 건물
  - 가액: 1억7천만원 (전세 7천만원)
  - 품만 오시면 됩니다
- 017-602-9779

### 촌집안내

- 위치: 안동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산지턱 끝에 있음
  - 평수: 25평
  - 방3, 거실겸 주방, 욕실 (전기, 수도 들어옴)
  - 스님께서 공부 하던 곳
  - 가액: 전세 1300만원
- 010-5438-2358  
010-9250-2358

###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대지 1206㎡, 입야 130㎡, 요사 198㎡, 대웅전 109㎡, 삼성각 30㎡, 7층 석탑
  - 실 사용평수 약 600평
  - 정남향
  - 산세수주, 진입로 포장
  - 가액: 보신 후 협의요
- 011-9143-0098

### 포교원안내

- 위치: 노원구 상계역 부근 (4호선)
  - 평수: 34평
  - 2층: 법당, 주지실
  - 3층: 방3, 주방, 세면실
  - 보증금 11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011-888-0130

## 탈종공고

- 사찰명 : 安國寺
- 창건주 : 李南周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울정동 326-1

상기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9일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실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현대불교 buddhanews.com